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최훈식	학번	
이메일	angelsic@lh.or.kr		

대학원명	(SPA) School of Public Affair in UC denver / MPA USA		
기 간	'20.12.12~'21.12.23		[귀국일: 21년12월23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교학처장 귀하

2022년 1월 일

신청인 : _____ 최 훈 식 _____(인)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 학교 등)

(지리적 위치) 저는 콜로라도 UC Denver에서 2년차 생활을 하였습니다. 콜로라도는 로키 산맥의 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도가 약 1마일이나, 고도로 인해서 생활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산악 기준시를 사용하고 있으며, 뉴욕보다는 2시간이 느리며 LA보다는 1시간이 빠른 시간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온 및 날씨) 약 12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눈이 오고, 봄은 매우 짧은 편이며 5월말부터는 시작되는 여름은 8월말 9월초까지로 기온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나 비는 많이 오지 않는 편입니다. 2021년 여름에는 기온이 약 35~6도 정도 까지 올라갔었으나, 건조한 편이라서 한국의 습한 여름과는 조금 다릅니다. 4계절이 뚜렷하여 한국의 날씨, 기온과 매우 유사합니다.

(생활관련사항)

주거형태는 대부분 2~3층 규모의 아파트에서 거주를 합니다. 단독주택을 렌트할수도 있지만, 3천불/월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GMP 2년차 학생은 대부분 아파트에서 거주를 합니다.

GMP학생의 경우 거의 모든 학생이 중고차 판매업체인 carmax 또는 전임기수로부터 차를 takeover를 받아서 이용하였으며, 중고차량 가격이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트는 H-마트(한인마트), Costco, 트레이더조, 홀푸드 등 다양한 마트가 있어서 한국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지 않아도 대부분의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기 가스는 Xcel 에너지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용하였으며, 겨울철 사용료는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약 150불 정도로 소요되었으며, 여름에는 약 70~80불 수준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상하수도 비용은 아파트 렌트비용 지불시 임대회사에 같이 지불하며 약 100불 정도로 지불되었습니다.

인터넷은 Xfinity를 주로 사용하며 매달 약 35불정도 비용으로 이용하였으나, 모뎀이 없을 경우 대여비용으로 약 20불 내외로 지불하면 렌트할수 있습니다. 모뎀을 월마트에서 별도로 구매하여(약70불) 구매해서 이용하는 방법이 경제적으로 좋을 수 있습니다.

집기류만 Takeover 받을 경우 주로 U-Haul에서 차량을 빌려서 이사시 활용합니다. 대부분 개인이 짐을 이동하며, 필요한 경우 사람을 구해서 이사를 할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집기류 Takeover 시기가 맞지 않을 경우 Public storage를 통해서 짐을 전달하는 방법도 있다. 한달 이용료는 약 150불로 짐을보관해놓고, 입국하고 늦게 입국하는 사람이 짐을 인수받을수 있습니다.

부모가 대학원을 다니는 경우 자녀를 공립학교로 보낼수 있으며 무료입니다. 카운티마다 초등학생, 중학생 등교 시간이 달라서, 체리 클릭 카운티의 경우 초등학생이 7시 50분정도까지 등교하고, 중학생은 8시 30분까지 등교를 합니다. 더글라스 카운티의 경우 반대로 중학생이 일찍 등교를 초등학생이 약 8시 30분까지 등교를 합니다. 입학시 영어 실력을 평가하며, 실력이 미달되는 경우 매일 ESL 수업을 별도로 약 30분정도 받을수 있습니다.

2.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과목마다 편차는 있지만, 전공필수 교수들은 1,2권인 교재를 기반으로 챕터별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강의가 구성됩니다. 챕터의 주요내용을 기반으로 과제가 주어지고, 핵심내용에 대한 사례나 의견을 제출하면 매주 평가한다. 과제는 매주 있는 편이고, 강의는 가이드를 제시하지만, 대부분 시간은 개인이 교재를 활용하여 주요 내용에 대한 심도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공부량이 많이 필요하며 노력한 만큼 학점은 주는 편입니다.

3.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UC덴버의 경우 겨울학기에 1과목, 봄학기에 4~5과목, 여름학기에 1과목, 겨울학기에 캡스톤(+1과목)을 듣습니다.

2021년 UC-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모든 강의를 인터넷 강의로 수강하였습니다. 매주 제공되는 강의 및 챕터에 대한 주요한 항목에 대해서 문제를 주고 페이퍼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토론을 하는 형태로 과목은 구성되어 있고, 중간 기말고사에 paper 위주의 과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과목에서 1개이상의 협업 과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주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많은 양의 공부가 스터디를 통해서 과목을 이해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생각보다 공부의 양은 많이 필요했으며, 핵심적인 위주의 내용에 대해서만 인터넷 강의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봄학기에 4과목을 듣도록 전담교수가 제안을 하고 있지만, 가급적 5과목을 이수하여서 가을에는 좀더 캡스톤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여름학기전에 모든 과목들을 이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4.기숙사 또는 아파트

주거형태는 대부분 2~3층 규모의 아파트에서 거주를 한다. 아파트는 주로 임대회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회사를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한다. 렌트비는 2bed 2bath 기준으로 약 2천불 정도이며, 지속적으로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대부분 목조건물로 층간 소음이 매우 심하므로, 아이들이 자유롭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1층 임대를 추천합니다.

5.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여행) 콜로라도는 중서부에 입지하여, 차량으로 콜로라도 내와 인접한 주의 여행이 매우 용이합니다. 그랜드 캐년, 옐로우 스톤까지 자동차 여행이 가능하며, 타 지역에 비해서 여행하기가 매우 용이하다. 숙박예약은 한 개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예를 어서 호텔스닷컴의 경우 10박당 1박의 무료숙박권을 주고 있다. 서부 동부여행은 주로 항공을 통해서 이동을 하지만, 장기 여행의 경우 서부는 차량으로 이동하여서 여행을 할수 있다.

(종교) 주변에 한인교회 미국인 교회가 많습니다. 미국의 교회를 경험하고 싶다면 미국교회를 가보는것도 좋지만, 미국인들과의 교류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한인교회는 한인 커뮤니티 형성이되어서 위급한 일에 대한 다양한 도움을 받을수 있다.

6.코로나 검사

PCR 검사의 경우, walgreen, curative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검사 결과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상이하나, 콜로라도는 통상 2일이내에 결과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종 결과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2~3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한국에서는 결과가 비행기 탑승전 3일이 포함된 날에 결과가 도출되면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항공사마다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탑승3일 전에 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walgreen에서는 Id now라는 코로나 검사를 추천합니다. ID now는 당일 결과를 받아볼수 있으며, 미국항공사, 한국항공사에서 모두 인정을 해줍니다.

7.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코로나 시대에서 GMP2년차는 대부분 인터넷 수업으로 진행되어서, 2년차 학교생활에 대한 경험은 간접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었지만, 미국의 교육, 문화 및 생활을 경험할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 자격으로 2년차 경험을 하게 되면, 교육에서 대한민국의 사례와 개인적인 경험을 과제작성시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8.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UC denver 대한은 봄학기 까지 많은 과제와 수업이 있어서 조금 힘들수 있지만, 이후에는 여유있게 시간을 조정하며 과제와 캡스톤 수행이 가능합니다. 캡스톤이 심적으로 부담을 줄수 있지만, 자신들이 업무에서 필요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하고 주제로 사용한다면 무난히 이행할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GMP 2년차로 선택할수 있는 다양한 학교와 지역이 있지만, 우수한 UC denver의 교육과 콜로라도의 문화 및 생활을 경험할수 있는 UC denver를 추천합니다.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김기웅	학번	
이메일	lawndog@naver.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CU Denver / MPA	(국가) 미국
기 간	2021. 1. 7. ~ 2021. 12. 17.	[귀국일: 2021년12월30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22 년 1 월 2 일

신 청 인 : 김 기 웅 (인)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미국 콜로라도 덴버 지역은 록키산맥을 끼고 있는 고산지역으로, 연중 300일 이상 맑은 날씨와 강한 햇빛이 특징입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 보통 11월에 첫 눈이 내려 4월까지도 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춥지만 추운 날과 따뜻한 날이 3~4일 간격으로 번갈아 오고, 낮에 해가 뜨면 기온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생활하기에 불편할 정도로 추운 기후는 아니었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과 충분한 편의시설들로 살기 편했고, 1년의 거주기간 내내 매우 안전한 곳으로 느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기 드물게 주차장에서 창문이 열려 있는 차들을 흔하게 볼 수 있었는데, 실제 현지인들도 덴버를 매우 안전한 도시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학기간 초기에 볼더 지역에서 무차별 총기사고가 발생해서 긴장한 적도 있지만, 이는 콜로라도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 학교의 경우, 평점이 높은 지역을 골라서 거주지역을 정한 덕분인지 초등교육의 수준이 매우 높다는 인상을 받았고 아이도 1년동안 즐겁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연중 재미있는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많은 것을 얻어가는 구조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초기에는 Zoom을 통한 원격수업을 했지만 곧 등교수업으로 전환되었는데, 등교수업은 양날의 검과 같았습니다. 아이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접촉자로 통보를 받게 되면 현지에서 대응할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매우 걱정되었습니다. 반면에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빠르고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우는 점은 좋았습니다. 부모의 선택에 따라 온라인 수업 / 등교 수업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자의 판단과 책임으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CU Denver의 전반적인 교육 수준을 평가하기는 매우 어려운데, 이는 2021년의 커리큘럼이 코로나로 인해 등교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대부분의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피드백이 충분치 못했고, 토론 또한 게시판을 통해 이루어져서 클래스메이트들과의 상호작용도 매우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들이 매우 아쉬웠지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CU Denver MPA 과정은 KDI와 학점 교차인정 덕분에, 1년동안 총 8과목(캡스톤 포함)을 이수하게 됩니다. 보통 윈터림(봄 학기 시작 전 과정)으로 1과목을 이수하고, 봄학기에 전공필수들로 4과목을 이수하도록 안내 받습니다. 이후 2과목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보통 여름 1과목, 가을 1과목) 이수할 수 있고, 가을 학기에 캡스톤 1과목을 이수(논문 작성)하면 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매주

교수님이 올리시는 주제와 자료를 읽고 1~2페이지 수준의 게시물을 업로드하고, 다른 학생의 게시물에 의견을 댓글로 다는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기말에 일정 분량(5~10페이지, 10~20페이지)의 페이퍼를 작성, 제출합니다.

항목 2에서 작성하였듯이 대부분의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수업의 특성상 내가 원하는 시간에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1년내내 시간의 유연한 활용이 가능했고, 그 덕분에 아이 학교생활, 가정의 일상생활, 여행 등 다양한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캡스톤의 경우, 페이퍼 작성과 프리젠테이션으로 구성되었는데 고객(기관, 회사 등)의 구성원이 평가자로 참여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수준의 석사 논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CU Denver는 가족들과 생활하는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집을 따로 구해야 했습니다. 미국 아파트 생활은 처음이었는데, 확실히 한국의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목조건물 특유의 부실한 방음, 방한은 생활의 불편요소 였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 렌트비가 동결 또는 인하된 상태여서 전년 대비 비싸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월 렌트비 \$1,800 (투베드)의 아파트 수준에 다소 실망했습니다. 현재는 주변 아파트 렌트비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 및 인상되어서, 투베드 기준으로 보통 \$2,200 ~ \$2,500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렌트비에서 알 수 있듯이 덴버 지역의 물가 수준은 미국 동부의 저렴한 지역에 비했을 때, 낮은 편은 아닙니다만 콜로라도의 주도임을 생각하고 생활환경과 편의시설을 고려한다면 비싸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전반적인 생활물가는 전기, 가스, 수도, 통신 요금은 비싸고, 기름, 식재료, 공산품은 한국보다 저렴했습니다. 내륙지역의 특성상, 해산물이 적고 과일이 다양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미국의 초등학교는 공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기부금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의 학교에서는 수학 시간에 선생님의 수업을 보조 및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를 정기적으로 모집하였는데, 매주 자원봉사에 참여함으로써 아이의 학교생활을 파악할 수도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초등학교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었고, 한국의 초등수학과는 다른 내용의 커리큘럼과 수업방식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아이 또한 낯선 곳에서 빨리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으며, 매주 하루 아빠와 아이가 함께 등교하는 것이 가족 모두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코로나 시국이었지만, 미국에서 1년동안 살아본다는 것은 새롭고 도전적이면서 동시에 즐겁고 여유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최종까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의 여러 학교들에 합격한 상태에서 코로나 안전도를 체크해 가면서 결정한 곳이 CU Denver 였습니다. 1년동안 매우 조심하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고, 활동이나 경험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만큼 얻어서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소 빈약한 2년차 학위 과정과 현지인들과의 미흡한 교류에는 많은 아쉬움이 남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모두 만족스러웠습니다.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무엇보다 아프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외식은 최대한 자제하고 픽업 및 딜리버리 서비스만 이용했습니다. 여행 또한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며, 어디를 가든 항상 철저히 소독했습니다. 다행히 미국 서부지역은 멋진 국립공원들이 많이 있어서, 그 곳에서는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여행을 하는데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1년 동안 아이가 몇 차례 아파서 병원을 다녔는데, 매번 상당히 버거운 일들이었습니다. 코로나를 이유로 한인 병원들은 신규 환자를 받지 않는 곳이 많았고, 일반 병원에는 코로나 환자들이 많아서 가기가 좀 꺼려졌습니다. 다행히 아이의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Urgent Care 와 약국을 통해서 모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코로나 시기에는 하고 싶은 것을 다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은 “선” 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리스크를 감내하면서도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코로나 때문에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사전에 명확히 정리하고 생활한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미국처럼 모든 판단과 책임을 개인에게 맡기는 나라에서는 한국과는 달리 내 선택에 따라 활동의 범위가 무한정 달라집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무작정 따라하기 보다는 내 기준을 분명히 하고 지낸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만족스러운 해외생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김현식	학번	
이메일	tremendouz@kdis.ac.kr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콜로라도 덴버 대학교 / 행정학	(국가) 미국
기 간	2020.12.18. ~ 2021.12.21	[귀국일:2021년12월21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 콜로라도주는 미국에서 살고 싶은 도시에 매년 3위 안에 들 정도로 살기 좋은 도시로 뽑히며, 실제로 1년 내내 따스하다 못해 강렬한 햇빛을 항상 쬌 수 있다. 따라서 눈이 많이 내려도 오후가 되면 금세 다 녹은 도로를 볼 수 있다. 꼭 햇빛 뿐만이 아니더라도 제설 작업을 훌륭하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배워도 좋을 듯 하다. 다만, 눈이 많이 올 때에는 정말 많이 오고 가끔 정전이 되기도 하지만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키를 좋아하는 분은 콜로라도에 가면 스키를 정말 많이 탈 수 있다. 스키 렌탈 가격은 비교적 저렴하지만, 스키 패스는 비싸기 때문에 자주 가려면 패스를 끊는 것이 좋다. 눈이 빨리 오면 9월부터도 오며, 눈이 가장 늦게 오면 5월까지도 온다. 혼자 공부하러 갔기 때문에 자녀 학교 문제 관련해서는 언급하기가 어렵다.
- 그리고 콜로라도 주는 서부이지만 거의 중부에 위치해 있으며, 국제 공항이 잘 갖춰져 있어서 미국 어느 도시든 비행기를 한번만 타면 갈 수 있어서 편리하다. 또한 자동차를 이용한 로드트립도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집중하여 여행을 하고 싶다면 콜로라도 덴버 대학교를 추천한다.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과 수강신청, 평가, 제안

- 콜로라도 덴버대학교는 가장 보편적으로 수강을 신청한다면 겨울학기 1과목, 봄학기 4과목, 여름학기 1과목, 가을학기 2과목 신청할 수 있다. 겨울학기 1과목은 intensive라고 해서 2주만에 끝내는 과정이다. 학위를 받기 위해서 필수로 들어야 하는 코어를 제외하면, 사실상 2과목만 내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 (MPP기준) 여기에서 팁을 드리자면, 봄학기, 가을학기에도 intensive과정이 개설되는데 이때에도 2주만에 한과목을 마칠 수 있으므로 학기 전체적으로 여유롭게 보낼 수 있다. 다만 2주 안에 한과목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8시간씩 수업을 들

어야 하고, 과제도 많기 때문에 힘들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그래도 이수 못하는 사람은 못봤다.) 참고로 내가 들었던 과목은 PUAD 5628 Urban Social Problems: Innovative Solutions to Poverty, PUAD 6600 Colorado State Politics이었는데 콜로라도주에서 다양한 부문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을 만나서 경험도 듣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 콜로라도 덴버 대학은 졸업하기 위해 캡스톤 디자인을 통과해야 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었다. KDIS에서 QM을 착실하게 배운다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캡스톤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SPSS (또는 STATA) 프로그램을 쓰는 것에 대해 익숙해야 한다. 혹시 KDIS에서 QM을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어려웠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추가 학습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캡스톤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문에 대한 통계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통계자료(엑셀 등)이 없으면 캡스톤 디자인의 핵심인 통계 프로그램을 돌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중에 디펜스라고 하여 담당교수 1, 2, 클라이언트를 상대하여 본인이 쓴 논문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 응답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무난하게 통과하고 싶다면 미리미리 쓰고 싶은 분야에 대한 논문을 많이 읽고, 통계자료를 확보하면 좋다. 통계자료를 찾지 않고 캡스톤을 쓰다가 나중에 다른 주제로 다시 시작해야하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본인이 겪은 일)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 콜로라도 덴버 대학교의 기숙사는 좋지 않다는 평이 많아서 아파트에서 살았다. 내가 살았던 곳은 Camden Caley라는 곳인데, 집 유지 관리 관련해서는 우수하지만 각종 행정서류 처리 관련해서는 실망을 많이 했다. 집을 찾는 팁은, 일단 살고자 하는 지역을 구글 맵으로 검색하고 'apartment'로 검색하면 임차할 수 있는 아파트와 리뷰를 볼 수 있는데 별점이 높은 곳을 위주로 구하면 된다. 추천하는 지역은 greenwood village(cherry creek 근처인데 주립공원도 있고 학군이 좋다. 서울로 따지면 강남, 대치동 급), centennial, highlands ranch, lone tree 정도 추천한다. 도심에서 적당히 떨어져 있고 학군이 전반적으로 좋다는 평이 많았고
- 미국에서 음식은, 개인적으로 햄버거는 five guys, 타코는 chipotle, 로컬 bbq 식당을 추천한다. 한식을 먹고 싶다면 aurora라는 지역에 가면 되는데, 콜로라도주가 좋은 점은 한인 마트가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비자, 출·입국 관련 정보

- 비자를 받기 위해 교수님 추천서를 서둘러 받을 필요는 없으며 9월까지만 학교 입학 허가를 받으면 된다. 비자 인터뷰는 3개월 전부터 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자를 진행하는 가장 속편한 방법은 학교에서 출국 설명회와 연관되어 있는 업체에 위탁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학교 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 가입한 실비 보험으로 학교 보험을 waiver 받고자 시도해봤지만 불가능해서 둘 다 들을 수밖에 없었다. 학교 보험은 신청, 환급 받는 과정이 어렵다. 따라서 입학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강제로 가입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된다. 본인이 학교 보험을 활용했을 때는 코로나 백신, 독감 백신을 맞았을

때 뿐이었다. (현장에서 바로 할인해 줌. 보험증은 카메라로 찍어서 다니면 유용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입 가능한 실비보험을 꼭 가입하기를 추천한다. 의료 보험이 없다면 의료비로 꽤 많은 돈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이다.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 미국에서 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는 유튜브에서 '미국에서 도난이 잘 당하는 차'를 미리 검색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콜로라도주는 다른 강력범죄율은 낮지만 자동차를 통째로 훔쳐가는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차를 도난당한 분도 계셨고, 본인 차도 도난을 당할 뻔했던 적이 있었다. 아니면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차고지를 임차(4인 가족이 사는 집은 같이 제공해준다.)하거나 도난 방지 장치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로드트립을 계획하고 있다면 되도록이면 연식이 얼마되지 않고 상태가 좋은 차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미국은 견인 서비스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또는 불안할 경우 AAA라는 별도 차량 보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 Take over가 불가능할 경우 중고차 매장 중에서도 Carmax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는 Certified Pre-Owned(CPO)라고 해서 검증된 차량 딜러숍에서 차를 구매하는 것도 좋다.
- 미국에서는 인터넷과 전화가 터지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에 여행을 다닐 때에는 꼭 구글 오프라인 지도를 다운로드해서 다니기를 추천한다.
- 미국은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고 다닌다고 해도 무방하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은 어느 주든 관계없이 쓰지 않는 듯하다. 콜로라도주는 되도록 백신을 접종하려는 분위기였으며, 별도 웨이팅 없이 언제든지 접종이 가능했었다.

교학처장 귀하

2022년 2월 3일

신청인 : 김 현 식 (인)